

빈곤지역아동의 거주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 우리 동네살이 -

김 경 희⁺

(꽃동네대학교)

김 선 민⁺⁺

(한성대학교)

박 근 혜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거주 체험을 아동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참여자로 그들의 거주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탐색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월드비전의 전국 24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모집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으로써, 각각의 기관에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지역 아동은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더러운 동네와 술, 폭력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자기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웃의 정과 관계성, 권리 실현을 위한 주체적 활동은 아동과 지역사회의 변화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빈곤지역 아동의 거주체험 구조는 “연결하기와 ‘구분짓기’ 사이에서 갈등함”, “도사린 위험 속에 방치됨”, “깜깜한 동굴에서 살아가기를 배움”, “이웃으로부터 마중물을 받음”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 차원에서 안전 확보와 주체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빈곤 지역, 아동, 거주 체험, 안전, 관계성,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월드비전의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기초선 조사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준 참여자들과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아동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체계이자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가능할 수 있는 잣대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대상 강력범죄의 급증으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으며(인준호·양승식, 2010), 일반 주택가에서도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혼자 남겨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이지현, 2010). 특히 이러한 범죄는 집, 학교 등 아동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발달과 삶을 생태체계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에서 바라볼 때, 아동이 살아가는 지역 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살아가는 지역사회(community)는 흔히 동네(neighborhood)로도 표현되며 주로 거주 지역을 의미한다. 동네란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물리적·상징적 경계를 가진 지리적 장소이다. 하지만 동네는 지리적인 성격을 넘어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장소라는 사회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인적 환경¹⁾과 비인적 환경²⁾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영애, 1999).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네는 “주거지의 인접성에 기초를 둔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교류에 의해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area)”로 정의될 수 있다(Davis and Herbert, 1993; 광현근·유현숙, 2007 재인용).

그렇다면 이러한 거주환경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아동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될까? 거주환경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Bronfenbrenner, 1979; Eamon, 2001). 특히 빈곤지역의 거주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빈곤 지역은 그 지역 내의 환경이 열악하며(곽은순, 2007; 김광혁, 2010), 아동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영애, 1999; 정준현, 2000; 김원필, 2002; 이봉주, 2008; Brooks-Gunn, Duncan, Klebanov and Sealander, 1993; Davis and Jones, 1996; Fagg, Curtis, Clark, Congdon and Stansfeld, 2008; Hart, Atkins, and Matsuba, 2008; Dearing, Wimer, Simpkins, Lund, Bouffard, Caronongan, Kreider, and Weiss, 2009; Hin, 2009; Schaefer-McDaniel, 2009). 특히 최근 연구에는 아동빈곤에서 빈곤의 메커니즘, 즉 빈곤이 '어떻게'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강현아, 2010: 328).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아동의 관점과 체험으로부터 보다 정확하게 대답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외문헌에서는 아동의

1) 비인적 환경은 주택간의 밀도, 공기, 도난, 안전도, 주변 청결도, 소음, 교육 및 정서환경, 교통사고의 위험도, 통학거리, 공공의 시설들을 나타낸다.

2) 인적환경은 이웃의 태도, 이웃의 수준, 협조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거지의 생태환경, 근린환경, 이웃의 특성 등을 의미한다.

시각으로부터 지역사회 환경을 탐구한 질적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Castonguay and Jutras, 2009; Pearce, Kirk, Cummins, Collins, Elliman, Connolly and Law, 2009).

그럼에도 국내에서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신의 거주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사회계층과 아동의 삶의 질의 관계 속에서 빈곤한 환경이 아동의 우울, 창의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력 등을 양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체험의 기제를 과정적으로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만약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삶을 그 환경 속에서 맥락적으로(contextual) 탐구한다면 빈곤한 동네의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한 동네에서 아동의 거주체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갖고 아동의 시각에서 거주 체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됨에 따라 빈곤지역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안전의 측면에도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는 전국 분포의 지역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빈곤지역 안에서의 아동의 거주체험과 안전의 쟁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적 측면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곱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2. 문헌고찰

1) 지역사회 거주환경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론들

지역사회 거주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본 장에서는 생태학 이론, 하위문화이론, 깨진 유리창이론, 사회해체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 인간발달에 관한 ‘생태학 이론’은 성장 발달하는 인간 존재와 환경과의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작용을 연구하는 것으로(Bronfenbrenner, 1979), 사회심리학, 환경심리학³⁾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이순형·신양재·김영주, 1991). 이웃과 지역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Bronfenbrenner, 1979). 또한 Eamon(2001)는 생태학적 환경의 5가지 구조(microsystems, mesosystems, exosystems, macrosystems, chronosystems)에 따른 아동의 발달과 사회 정서적 기능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과정은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다고 하였다. 빈곤은 아동의 또래집단, 질 낮은 수업에의 참여, 지지적이지 않은 학교 환경에의 노출 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

3) 환경심리학에 의하면 주거의 종류와 질이 거주자의 자기자각, 자기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像)과 주관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Ittelson, W. H., Proshansky, H. M., Rivlin, L. G. and Winkel, G. H., 1995).

학 이론은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사회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빈곤가족과 아동을 위한 개입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현재 문제의 발생에 미친 영향이나 환경적 변화에 관심을 갖는 개념이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이다. 생태학이론을 기반으로 한 동네효과는 동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넘어서서 개인의 후생(厚生)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곽현근, 2004: 5). 따라서 아동의 생태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아동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회학 이론 중 하나인 '하위문화이론'은 도시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시선을 두며,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머튼(Merton)의 긴장 이론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는데, 긴장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적법한 사회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불법적인 행위가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시의 하층민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당한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하층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적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성의 사회체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의 사회체계에서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비행하위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행하위문화에서는 불법행위가 오히려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아동은 길거리 집단에 가입하여 소속감을 느끼기도 한다(Miller, 1958; 박형민, 2010 재인용).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 사회의 무질서가 범죄 발생의 주된 요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깨진 유리창은 버려진 차량과 낡은 건물, 쓰레기 등과 같이 무질서한 도시의 물리적 징후를 대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무질서⁴⁾는 또 다른 무질서를 낳는 중요한 사회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웃 간의 싸움이나 갈등, 쓰레기 방치, 빈집이나 빈터, 잦은 술 취한 사람들의 왕래, 높은 소음, 어둡고 후미진 공간, 기물 파손 및 낙서 등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웃과 사회적 유대를 꺼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동네가 무질서할수록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이 증가하고, 동네 무질서가 높으면 동네사람들의 비공식적 교류가 낮으며, 동네 조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Geis and Ross, 1998; 김영제 외, 2008 재인용).

넷째, 사회해체이론(neighbourhoo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포함한 사회해체는 지역사회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가치와 규범의 갈등, 문화 변동, 일차적 인간관계의 감소 등을 야기하며 사회의 통제능력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범죄와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이론은 빈곤한 지역사회의 위험한 환경이 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빈곤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의해 청소년들은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 특히 유익한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의 부재, 비공식적 사회통

4) 여기에서 의미하는 무질서는 쓰레기, 낙서, 낡거나 빈집 등의 물리적 무질서 외에 취객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는다는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며 단체로 배회한다는가, 창녀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등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무질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의 약화는 빈곤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폭력에 노출되는 구체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강현아, 2010: 331).

본 연구에서 이 이론들을 검토한 이유는 빈곤지역의 환경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앞서 검토한 폭력, 비행 등의 하위문화 조성과 무질서의 가속화라는 빈곤한 지역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실제로 아동에게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 지를 관련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빈곤지역의 문화 자체를 범죄성이 있다고 전제하거나,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하는 일종의 낙인화의 위험이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한 측면인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거주민들의 노력이나 강점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만으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연구의 수행을 통해 아동의 관점과 능동성을 반영하여 위해환경 탐색과 극복의 실마리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지역사회 거주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앞서 지역사회환경에 관한 몇 가지 심리사회적 이론들을 간략히 검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지역사회환경에 관한 연구들의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아동의 거주실태에 관한 연구와 아동의 거주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국내문헌에서 빈곤 아동의 지역사회 거주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복지욕구에 관한 실태조사(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김윤정, 2006; 윤철경·조홍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2006; 이용교·천정웅·안경순, 2006), 저소득 주민의 거주환경에 관한 연구(이정희·김선균·최목화, 1990; 이병대·동재욱, 2005)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빈곤아동의 거주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곽은순 외(2007)는 아동의 거주환경을 계층별, 거주지별로 살펴 본 결과 빈곤가정은 주거비용의 지출에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협소한 공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행정, 교통수단이 열악한 곳에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광혁(2010)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빈곤아동의 거주환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도는 낮은 수준이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옥(2006)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거주환경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서적, 신체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주환경에 관한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여러 문헌에서 아동의 거주환경이 아동의 발달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순형 외(1991)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가정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나 물리적 환경의 불리한 조건은 아동에게 일반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면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낳게 하여 빈곤의 세대이동을 계속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거주지역의 빈곤은 아동의 인성발달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며(김영애, 1999), 아동발달과 학업성취,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이봉주·임세희, 2008:

김희윤·백학영, 2010). 또한 아동기의 물리적 공간 체험은 청소년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아형성 및 성격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준현, 2000; 김원필, 2002). 강현아(2010)는 청소년이 빈곤으로 인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폭력피해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 및 불안으로 이어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취약하고 무질서한 동네와 관련하여 동네효과⁵⁾에 관한 연구들(곽현근, 2003, 2004, 2007)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개인들도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곽현근, 2004).

외국 문헌을 살펴보면, 아동의 거주환경이 아동의 인성, 학업성취,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Hume 등(2009)은 이웃사회환경이 아동의 신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957명의 아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웃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동들이 신체적으로 보다 활동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아동의 거주환경이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과 발달 및 학교 밖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Brooks-Gunn et al., 1993; Davis and Jones, 1996; Min and Lee, 2006; Fagg et al., 2008; Hart et al., 2008; Dearing et al., 2009; Hin, 2009; Schaefer-McDaniel, 2009).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거주환경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연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동향이 최근에는 아동의 시각(children's perspectives)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Nayak(2003)은 지역사회 안전 문제는 “아동의 눈을 통하여(through children's eyes)”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범죄 피해의 두려움과 같이 측정하기 어려운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들의 ‘눈’을 통하여 접근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방법의 적용이 유용할 것이다.

기존에 수행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몇몇 질적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Pearce 등(2009)은 39명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환경적 영향들이 신체적 활동과 건강한 섭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Castonguay와 Jutras(2009)는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7~12세 아동에 대한 개별면접을 통해 자신의 동네에서 좋아하는 장소와 싫어하는 장소를 파악한 결과, 아동들이 위협적인 장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Anthony와 Nicotera(2008)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하여 청소년의 이웃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들이 지역사회의 위험요소들(hassles)와 자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4가지 주제(위험요소, 인적 자원, 공식적 자원, 비공식적 자원 등)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주변 환경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아동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

5) 동네효과연구는 우선적으로 빈곤과 풍요의 공간적 형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동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넘어서서 개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Wilson(1996)에 따르면 좀 더 사회적으로 고립된 빈곤동네일수록, 친척, 친구, 그리고 아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극단적인 경제적 주변부(marginality)로서의 경험만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개인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곽현근, 2004).

된다(Anthony와 Nicotera, 2008; Burton, Price-Spratlen, Spencer, 1997; 강현아, 2010 재인용). 그러나 국내에서 아동의 시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빈곤지역의 안전과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룬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지역사회안전을 포함한 거주체험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시의적절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곤한 동네에서 아동의 거주체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를 선택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인 그룹 토의”(Kreuger, 1986)로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해 토론 방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심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 내는 연구 방법이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 인터뷰를 선택한 이유는 아동들이 개인 인터뷰 보다는 집단 인터뷰일 때 더 편안하고 활기차게 자신의 체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 토의를 통해 경험적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안 모색을 통한 함의를 더 잘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월드비전의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기초선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월드비전 직원으로 구성된 연구조사팀이 전국에 분포한 월드비전 전국지부 12개 복지관과 12개의 가정개발센터(FDC)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초점집단은 아동과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각 기관마다 두 집단으로 섭외되고 구성되었다. 한 집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등록 아동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집단은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포함시켰다. 참여 아동의 연령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였으며 각 집단의 크기는 5~10명 정도였다.

인터뷰는 2009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48회 진행되었다. 한 번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두 개의 아동초점집단을 인터뷰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다. 주 진행은 연구자들이 하였지만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도 1~2명씩 참석하였다. 참석 목적은 필요한 경우 아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아동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모임 구성을 위해 이미 지역사회복지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개괄적으로 본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한 상태였지만,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시 연구 목적과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인터뷰 내용 녹음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초점집단 진행에 앞서 아동의 긴장을 해소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와 레크리에이션, 자기소개 등을 함께 하였다.

연구 질문은 아동의 우리 동네 거주 체험에 관한 것이다. 먼저 “우리 동네는 내가 살기에 어떠한 동네인가?”를 질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우리 동네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싫은 지,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해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였다. 매회 초점집단 후에는 연구자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도출된 주제와 내용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주제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녹취록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줄 단위 분석을 통해 코드를 잡고 관련 주제를 범주화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각자의 분석 작업 외에도 수개월간 매주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녹취록을 읽고 범주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개방코딩에 대한 피드백 제공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의 질 검증을 위하여 Lincoln and Guba(1985)가 제시한 신실성(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한 실천 전략을 이용하였다. 첫째, 신빙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사회복지사들과의 교류 및 다수의 집단 분석을 통한 검토와 확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 집단 내의 참여자를 깊이 있게 여러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여 다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신빙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참여관찰이나 참여자로부터의 직접적인 결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들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미리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과 자연스런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 아동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직접적인 확인을 받는 대신 다른 지역 기관의 아동으로부터도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 지, 다르다면 어떤 측면에서 다른 지를 검토해 나가는 방식의 지속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여 나가려 하였다. 신뢰성(dependability)과 확증성(confirm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딩 작업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고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에 대해(관련 실무진 앞에서)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제시된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 결과를 구성하였다. 양적으로 방대한 자료라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무자들로부터 협력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동료 연구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계속 만나면서 공동 분석과 반성적 고찰(reflexivity)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빈곤지역은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룬 가구가 집약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여성 한부모 가장 또는 노령, 장애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적은 성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노동력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이거나 저녁부터 야간까지 일을 나가는 등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동은 대개 보호자로부터의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렵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빈곤지역 아동 대부분은 동네 환경이 자신에게 유해하다고 보고하였고 동네를 자기에 대한 배려가 적은 공간으로 경험하였다. 빈곤지역 아동에게 동네는 '더러운', '무질서한', '놀이 문화공간이 부족한', '어두운', '위험한'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아동은 공동체 일원인 동시에 행위자 및

관찰자, 보호망 차원의 수혜자로서의 체험을 자신들의 언어로 드러내었다. 빈곤지역에서 아동의 신체적 안전은 담보되기 어려웠다. 아동은 신체적 안전의 위협 뿐 아니라 주변 동네로부터 빈곤과 관련된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낙인을 경험한 아동은 동네사람들 가운데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상태가 다른 아동이나 지역주민들을 타자화하거나, 자신들이 경험한 지역 내의 부정적 정서와 구분 짓기를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보살핌과 위협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동네에서 살아내며 이웃의 관심과 보살핌을 마중물 삼아 성장하고 있다.

아동이 체험한 공간, 시간, 신체, 관계성을 반영성의 도구로 추출한 빈곤지역 아동의 거주체험 구조는 “‘연결하기’와 ‘구분짓기’ 사이에서 갈등함”, “도사린 위협 속에 방치됨”, “감감한 동굴에서 살아가기를 배움”, “이웃으로부터 마중물을 받음”으로 나타났다.

1) ‘연결하기’와 ‘구분짓기’ 사이에서 갈등함

• 이웃과 잇닿음

빈곤지역 중에서도 밀집된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소음 등 이웃과의 공간적 부대낌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사로 인한 이동이 적어서 한 곳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을 인정하는 익숙한 이웃의 존재를 통해 자신이 이웃과 잇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과 지역적 일치감은 아동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해 ‘그 집 손가락 숫자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아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적 네트워크 기제로 작동한다. 즉, 빈곤지역에서 이웃이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면 동네 사람들의 ‘보는 눈’은 아동 양육과 보호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곳은 서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잠깐 한나절만 안보여도 안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웃과 잇닿아 있기 때문에 이웃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는 아동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이웃에서 일어나는 폭력, 자살 및 타살, 기타 법적인 사건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아동들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매우 선명하게 기억하였다. 아동은 동네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일들을 사실 그 자체 뿐 아니라 자신들 나름의 해석까지 더하여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끔가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죽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죽었어요. 자살해서 10층에서 떨어져서...작년에도 203호에서 죽었고...그런 일이 없도록 살기 좋게 만들어주길...”

• ‘한통속’ 취급당함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집약적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

고들로 인해 강화된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동질성이 임대주택단지의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사건들은 외부로부터 더 '집단적'인 형태로 주목받는다.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개인으로 보다는 '00동 아이들'과 같이 '가난한 동네 아이들'로 지칭되어서 계층으로 낙인을 받았다. 아동에게 어른들의 추한 모습은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동은 '한통속' 취급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낙인의 내재화를 통해 이웃이 나와 다르다고 구분하는 태도를 갖기도 한다.

“경찰차 맨날 와요. 막 빨개 벗고 싸워요. 윗통 벗고 싸워요. 그런 걸 보면 추하죠..”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창피해요. 그냥 막 뒤랄까 민망하죠.”

• 바른 '본'에 목마름

아동에게 중요한 우리 동네 환경은 주변의 어른들이다. 그런데 아동에게 어른들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들이다. 기억에 남는 어른들은 아동의 바른 본이 되지 못하는 '닭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술과 싸움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맞닥뜨려 봐야 나만 손해인 어른들이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예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동네는 경찰차, 소방차, 좀 그런 차들이 많이 와요. 아저씨들 술 드시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어떨 때 술 취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는 술 드신 아저씨가 저희 엄마한테 욕을 한 적도 있었고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보게 되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뭘 끌쳐봐라고 욕을 하시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음, 어른들이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 같아요.”

아동의 일상에 침투한 욕과 술 문화 속에서 아동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되고 싶지 않은 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적절한 생활방식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동이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아동은 술과 욕설, 폭력문화 속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에 전염될까봐 우려하고 바른 본에 목말라 한다. 따라서 아동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본이 되어 주기를, 그래서 우리 동네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공통적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환경의 개선에 앞서 나의 정체성 형성과 미래의 모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애들을 먼저 생각을 했음 좋겠어요.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니까. 오빠들도 어른들 보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막 열두시까지 집에 들어오고, 남의 집에서 아예 자고 오는 게 하루 일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애들이 보지 않게 모범을 보여 주는 게 좀 더 우리 동네가 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또 쓰레기를 안 버렸음 좋겠어. 왜냐하면 어른들이 계속 쓰레기랑 버리니까 애들도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게 되고요”

“저번에요, 중학교에 가봤어요, 그런데 형들이 나한테 담배피자고 하는 거예요.”

2) 도시린 위험 속에 방치됨

빈곤지역에서 아동은 지역의 주인과는 거리가 멀다. 아동은 철저한 주변인이다. 아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할 수 있는 몇몇 시설과 공간도 부서지고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아동은 일상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위험과 맞닥뜨리며 살아간다. 이러한 방치와 위험의 지속은 아동에게 자신들의 존재가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놀이터 밖에서 서성임

빈곤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놀이문화공간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기존에 비공식적인 놀이터로 사용되던 공간도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등 아동을 위한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 또는 있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동네 놀이터는 아동의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깨끗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 곳에 웃으며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없었다. 고장 난 놀이기구들이 쓰레기 더미에 뒤덮여 방치되어 있었다. 놀이터의 모래는 깨진 술병, 담배와 담뱃재, 쓰레기 등으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처음부터 아동의 연령과 욕구를 고려하여 만든 놀이터가 아닌 곳이 많았다. 공터에 놀이기구를 몇 개 들고 놀이터라 불렀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에서는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많은 공간이었다.

“축구나 뭐 야구하러 가면요, 근처에 운동장이 별로 없어요... 야구를, 아파트에 보면 저 빈터 있는데 그쪽에서 하다보면요, 아파트 밑에 그늘지고 구멍 뚫린 쪽에 공 들어가면... 거기에 풀이 많아가지고요, 풀독이 올라요.”

“아침에 딱 놀이터 딱 가면 쓰레기 엄청 많아요... 냄새... 썩린내?”

“놀이터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옆에 이렇게 불장난해서 탄 것도 있고요, 빠진 것도 있고요.”

“쪼끄만 애들이 놀 수 있는 기구만 있어서 우리들은 못 놀아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빈곤지역의 놀이터, 학교 강당, 및 운동장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아동만의 전유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 정책은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한 공적 시설이 부족한 빈곤지역에서 아동의 안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동들의 공간인 놀이터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는 공간이 된다. 안전한 시설과 치안이 확보되지 못한 놀이터는 아동이 즐기고 누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신의 위협이 되는 장소가 된다. 학교강당과 운동장 또한 담배와 술병 등 어른들이

남긴 쓰레기로 인해 아동의 학습 환경과 심신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

“학교 강당 안에 깨진 것이 있어요. 학교 조기 축구회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하면 담뱃갑과 술병들... 유리병 깨진 것도 있고요. 깨진 술병. 제가 6학년이라 봉사활동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아침에 봉사활동 하러 나오면 거의 다 유리 조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줍다가 긁힌 적도 있었구요. 그게 위험하잖아요. 저희 학교에 병설 유치원도 있잖아요. 어린애들 있는데 그런 데가 그렇게 버려 둔 것이 있으니깐 애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 애들 바로 놀이터도 있구요.”

아동을 위한 공간의 부족과 관리의 미비, 그리고 시설의 전용은 동네에서 아동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다. 이는 아동의 존재와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아동을 주변인으로 밀어내면서 ‘눈치밥’을 주는 것과 같다.

• 쓰레기 정글을 헤쳐나감

빈곤지역 특히 임대주택단지에 사는 아동들은 건물 위층에서 갑자기 쓰레기가 투하되어 위험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아동들은 자신들의 머리위에 언제 무엇이 낙하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아동에게 쓰레기 투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네가 기초질서가 없거나 기초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표상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아동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행해지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위험한 이웃을 구별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니다보면 아파트 위에서 쓰레기를 던져서 막, 맞아 죽을 뻔 했어요.”

“막 앞에서 병 떨어지고, 침 뱉고... 아파트에서... 병도 떨어져요, 계란도 떨어져요. (그거 맞으면) 죽죠, 뇌진탕 걸리는 거예요.”

빈곤 지역에서 거리에 널린 쓰레기는 그 지역이 ‘꼴은’ 지역임을 표상한다. 동네에 널린 쓰레기는 불결한 환경일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빈곤지역에서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된다. 하지만 아동은 어른들이 ‘기초질서’ 혹은 ‘개념’이 없어서 쓰레기를 무질서하게 버린다고만 믿으면서 이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동은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에 차차 익숙해진다. 학교에서 기초질서를 배우지만, 주변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고, 길에 쓰레기가 널려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이외의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아동 또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동은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자기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개념 없는 이웃’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놀이터 모래에 쓰레기가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서 그냥 버릴 때 많아요. 그냥 모래 속에 버리고 가요.”

• 위험한 시간을 건너감

아동 스스로가 “우리 동네에 CCTV가 있다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일상의 느낌을 전할 만큼 우리 동네는 아동에게 무섭고 위험한 동네이다. 기반 시설의 부재로 인한 위험은 빈곤지역의 특징을 이룬다. 좁은 도로와 골목,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과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치안의 부재로 아동에게 체감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또한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무질서의 난무 속에서 아동은 늘 불안하다.

“신호등이 망가져서 차들이 그냥 다녀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차들이 썩썩 달려요.”

빈곤 지역은 늘 어수선하고 공사 중인 곳이 많다. 언젠가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 때문에 낡은 학교나 공공건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민 특히 아동은 더러움과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간다. 또한 아동이 지각하는 무질서한 동네는 직접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저녁 이후 아동이 느끼는 불안과 위험은 낮에 비해 배가된다. 어두움,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안전관리체계의 부재, 즉 아동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부재 및 폭력적 환경은 아동에게 불안과 위험을 야기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술 먹는 아저씨들 많아서 약간 좀 밤에 다니기 무섭거나 위험하고 오빠나 언니들이 돈을 자주 뺏는 일을 많이 보고, 청소년인데 담배나 술 먹는 것... 좀 많이 안 좋은 것을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골목이 많은데, 아침에는 낫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그것 땀에 썩 짜증나고 밤 되면 심부름 갔다가 오면은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요. 밤에는 으스스해요”

“노숙자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저희 집 앞에서 대자로 뺨어 자 버려가지고 학교 못 나왔어요.”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은 맞벌이를 하거나 아동 돌봄을 할 수 없는 야간 혹은 장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한 공간에 장기간 혼자 있어야 하는 아동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지역사회에서 설립한 공부방 기능을 하는 기관들도 부모의 직장 및 근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의 공백이 생긴다. 불량한 가로등, 인적 드문 좁은 골목, CCTV가 없는 거리에서 아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두려움과 위험을 느낀다. 자신의 삶이 예외적이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는 인식은 아동이 경계인 (marginal)

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건강한 주체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3) 캄캄한 동굴에서 살아가기를 배움

• 공부보다 안전을 먼저 챙김

빈곤지역에는 없는 것이 많다.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와 시스템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하교길의 교통안전을 위한 참여활동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등하교길이 우범지역일 경우에 아동의 안전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또한 빈곤지역은 사교육장을 설립하기에도 매력적인 곳이 아니다. 만약 사교육의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 아동들이 사교육 운영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 아동은 사교육을 받으려 할 때 자기 실력과 경제력에 앞서 귀가시간이 언제인가, 학원 버스가 집문까지 데려다 주는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알기에 아동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이렇듯 사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빈곤 지역 아동의 교육 현실은 아동의 학업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원에서 버스 운행하지 않는 날은 학원에 가지 않아요. 올 때 걱정되거든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골목길인데 그때는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척 하면서 걸어요.”

• 어두움에 눈 밝힘

빈곤지역 아동들은 동네의 위험인물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아동들은 늘 맞닥뜨리며 일상에서 위험의 원인을 제공하는 동네 어른들에게 ‘변태’, ‘강패’, ‘쓰레기 아저씨’, ‘고주망태기’ 등 그들의 신체적 특징, 혹은 행동으로 인한 별명을 붙여 자신들 나름대로 위험인물의 정체성과 그 위험의 수위를 암호처럼 드러낸다.

“OO동에 뽕뽕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따라다녀요.”

“저희 동네에서는 변태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빈곤지역에서 아동이 체감하는 폭력적 환경과 그로 인한 불안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실제로 많은 아동들이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거나 술병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 노출되거나 관련되면서 위협감을 느꼈으며, 좁고 어두운 골목 때문에 밤에 다닐 때에도 불안감을 느꼈다. 부실한 문 잠금장치 등 허술한 주거환경은 특히 여자아동들에게 성폭력의 위험을 상시 느끼게 하였다. 아동은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 내역과 위험인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고, 어떤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어떤 시간은 피한다는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아동이

동네에 거주해 온 기간과 자기 가족원이 얼마나 동네 이웃들과 교류해 왔는가에 비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를 온 아동들은 이러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빈곤 지역 아동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려면 ‘뭉쳐’야 한다. 이러한 뭉침은 단순히 또래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동네 아저씨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쳤어요.”

“여자애들이 좀 엘리베이터에 아저씨가 (같이) 타는 것도 무서워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좀 같이 뭉쳐 다녀요.”

이 때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경찰의 존재는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빈곤 지역에서 경찰은 아동을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그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필요한 시간과 공간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제공받는 것은 어렵다.

“바바리맨이 막 쫓아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순찰했을 땐 없었대요. 그니까 (그 때..)핸드폰 딱 드니까 도망갔어요.”

만약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경찰이 예방적 조치로 순찰을 한다면 아동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경감될 것이다. 경찰의 출현이 아동에게 예측가능해질 때 아동은 기초질서가 지켜지고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믿음이 아동의 동네살이를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이웃으로부터 마중물을 받음

이웃주민과 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우리 동네’는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빈곤 지역에서 아동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통해 성장과 발달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 앞서 본 것처럼, 빈곤지역은 위험하고 불편하며 지지분한 공간으로서 다수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능성과 실천에 대한 동력은 이웃과의 관계와 보살핌으로부터 나온다.

• 조용한 보호를 받음

빈곤 동네에 장기간 거주한 아동일수록 이웃 간의 삶의 내막을 알고 이해한다. 특히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어른들은 아동이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아동은 자치순찰활동을 하는 어른들, 안전 조치를 해 주는 어른들, 아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어른들을 자신들의 지원군으로 바라보았다.

“저희 동네는 어려운 일 같은 거 있으면 다 도와주고...워낙 친해가지고 맨날 만나고 사람들이 길에 다니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분들이랑 알아 가지고 위험한 일 치했을 때 도와주실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아동 대상 범죄이후에 빈곤지역에서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네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생겼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아동이 동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사람임을 상기시키는 공통적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그때부터 녹색 어머니처럼 교통지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고 그러면요 좀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아동은 지역복지관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 교육을 통해서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의 위험에 대한 민감성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아동이 사회의 제도 내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 변화를 만남

빈곤 아동에게 '좋은 동네'란 편리한 시설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시설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관의 청결과 질서정연함, 주민의 편의를 위한 활용도에 따라 아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에 영향을 주었다. 아동에게 놀이터, 복지관, 슈퍼, 병원, 체육시설, 노인이용시설 등은 좋은 동네를 구성하는 요소로 경험되었다. 편의시설, 즉 가까운 데서 물건을 사고, 아플 때 쉽게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동에게 그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느끼도록 한다. 좋고 아름다운 건물도 아동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 앞에 갑자기 들어선 고층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건물을 새로 지어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아동들은 새로 지어진 쾌적한 건물에 호감과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새로운 건물의 제공 또는 새로운 환경의 조성은 아동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은 새로운 건물을 통해 편리함과 쾌적함을 느낄 뿐 아니라 자기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때문에 꽃을 많이 심고 페인트 해서 기분이 좋아요.”

이웃의 변화와 아동의 변화 경험은 아동을 계속 움직인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권리활동'은 아동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권리 옹호를 위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권리를 위협하는 영역들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아동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편하고 위험했던 환경이 개선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열악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변화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아동은 캠페인 참여를 통해 존중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와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하였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거기서 놀이터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깐 어떤 진짜 덜렁덜렁하고 그러던 게 진짜 예쁘게 바뀌었어요.”

“(아동권리 캠페인에 참여하며) 좀 발전이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 그런데 기대대로 이루어지니까 더 좋아요, 보람 있고.. 뭐라고 해야 하지? 좀 뿌듯하다고 해야 하나, 앞으로 이런 일 하면 또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5. 결론 및 제언

그동안 지역적 공간에서 아동은 주변적인 위치였으며(Smith, 1995; Nayak, 2003: 304 재인용) 아동의 경험에 대한 의견은 공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주거체험에 대한 질적 경험은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잘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동의 관점에서 그들의 거주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살펴본 본 연구는 진행과 결과 모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위험한 환경 뿐 아니라 아동이 그 안에서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빈곤지역의 아동에게 우리 동네라는 공간은 보호와 지지의 삶의 터전으로서 보다는 '셋방살이'의 불안정한 공간으로 더 많이 인식되었다.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빈곤 지역에서 아동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웠다. 가로등, 신호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치안 체계의 미비 때문에 아동은 신체적, 성적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었으며 야간이 되면 그 위험과 공포는 배가 되었다. 이는 기존의 질적연구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Anthony and Nicotera, 2008; Castonguay and Jutras, 2009).

그런데 외국의 문헌과 달리, 우리 문화에서 아동의 눈앞에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갱(gang)이 아니라 "술에 취한 아저씨"였다. 아동을 좌절로 이끈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공간을 무질서로 이끄는, 아동의 눈앞에서 법과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어른들이었다. 또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성을 지르고 쓰레기를 투하하며 동네를 오염시키는 어른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초기에는 외부의 시선에 따라 동네와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켰지만 점차 부정적인 위치를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스스로를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동이 바라본 이웃의 두 가지 모습이다. 빈곤한 동네에서 어떤 이웃은 빠른 이동성 때문에 이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식별이 어려운 낯선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관계를 지속하는 대부분의 이웃은 고정성과 밀접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웃의 이동성이 낮은 지역에서 어른들의 행동양식은 아동에게 내면화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자주 접하고 노출되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아동기의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성이 낮은 임대주택단지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술, 폭력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동네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살이나 기타 범죄의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차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그러므로 알콜중독, 폭력, 자살 등 빈곤지역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성과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동은 그 속에서도 역할 모델과 새로운 변화를 계속 찾았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동성이 없는 지역에서 면면히 남아 있는 끈끈한 이웃의 정과 관계성이 이러한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주변적 위치에 있는 아동을 주체적 위치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술주정 부리는 어른들을 막아주는 또 다른 어른들의 보호막 속에서, 놀이터를 수리해 달라는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깨끗한 놀이터를 되돌려 받게 될 때, 아동은 우리 동네의 변화 가능성을 체험하고 믿게 된다. 이것은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접근이 이웃 주민 즉, 지역적 기반과 분리되어 진행되어서는 효과적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우리는 아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위험과 불안 속에서의 삶의 면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미봉책인 아닌 궁극적인 해결방안과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아동이 거주체험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빈곤 지역에서의 일탈 하위문화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집단의 움직임과 문화 형성에 대해 논의하고 한다.

첫째,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밀집지역에서는 위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CCTV 설치와 순찰 강화를 통해 사회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때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지역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사례⁶⁾를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장미혜, 2009: 205). 이러한 기초질서 확립과 치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은 아동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기초 질서가 확립된 통제적 환경 속에서 아동은 자기통제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이 주체적인 활동을 해 나가게 될 때 아동은 긍정적인 자기상을 경험하고 자기 실현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빈곤지역에서 여자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6) 현재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거리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뿐 아니라 환경설계의 도입이나 방범카메라 등의 설치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방범활동의 추진도 주목할 만한데,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스쿨가이드 리더 및 스쿨서포터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본다. 본 연구에서 여자아동들은 성폭력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다. 가로등 없는 길, 좁고 외진 골목, 혼자 오랫동안 집에 있게 되는 상황, 술에 취한 어른과 비행 청소년이 점령한 놀이터 등은 특히 아동 성폭력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환경이다. 성폭력 문제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고 빈곤 지역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여자 아동의 성폭력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위협과 문제를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대처 및 예방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지역적 특성과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비엔나시의 대응방안 사례⁷⁾를 참조하여, 당사자인 아동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및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응 절차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빈곤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연대 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아동의 “뭉쳐 다니는 전략”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보호 전략이면서도 비행의 하위문화가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Nayak(2003:312)이 “갱(gang)은 범죄와 괴롭힘을 영속시키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아동 보호와 지역사회 유대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범죄에 대한 공포 속에서 아동의 자구책은 집단화와 분리화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단의 형성이 서로에 대한 배제와 지역사회의 분할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공동체 움직임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주변인으로서의 무기력감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⁸⁾. 동네수준의 유대와 동네조직의 참여를 통하여 신뢰, 상호부조 및 자조(self-helping)의 규범을 조직할 수 있고, 이러한 규범들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곽현근, 2004). 이는 주민들 사이의 비공식적 사회조직과 참여 활동이 궁극적으로 사회통제를 활성화시키며 개인을 역량강화 시킨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대로 한 지역복지관에서 실행중인 동네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환경의 외관을 바꾼 것 뿐 아니라 아동에게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연쇄 효과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어른들이 아동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등하교 교통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야간순찰활동을 시작하는 모습들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본받을 만한 어른들, 좋은 동네,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는 파급 효

7) '비엔나시 사례'를 통해 여성 안전을 위한 대응방안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장미혜 외, 2009:197). 첫째, 가로등 조명이 어둡고 버스 등의 조명이 어두울 경우 관할부서에 신고할 수 있게 핫라인을 구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여자 아동이 학교나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목록으로 만들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셋째, 자기방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성희롱 상황을 예측해 보고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해 본다.

8) 최근 서구 선진국의 지역사회형성(communitiy building), 동네재생(neighborhood regeneration),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운동에서 보여주듯이, 빈곤, 범죄, 환경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정부나 시장이 아닌 동네를 단위로 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구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제3의 방식들은 참조할 만하다.

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는 지역의 사회통제 뿐 아니라 아동과 지역 주민의 긍정적인 자기정체감 형성에도 의미 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위험한 지역이라는 시선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주민들의 정과 보살핌, 변화를 위한 동기에 보다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힘을 집합적으로 조직화시켜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때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찾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자로 존중되어야 한다. 즉, 아동의 안전 확보를 비롯한 거주체험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동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아. 2010. "빈곤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327-348.
- 곽은순·정미라. 2007.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환경".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493-505.
- 곽현근. 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259-285.
- _____. 2004.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8(6): 1-22.
- 곽현근·유현숙. 2007. "사회적 배제로서의 주거지 격리가 주민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3: 65-90.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김윤정. 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광혁. 2010. "한국 아동의 생존권-빈곤 및 가족, 주거 환경, 안전, 건강 및 의료의 실태 및 변화 추이". 『아동과권리』 14(1): 1-39.
- 김영애. 1999. "아동의 인성발달과 물리적·사회적 주거환경의 관계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제·한상일. 2008.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229-251.
- 김원필. 2002. "아동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경험이 현 거주공간의 개인 영역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8): 3-10.
- 김희운·백학영. 2010.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네효과 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53-84.
- 박형민. 2010. "도시의 범죄발생 원인". 『도시문제』 45(503): 12-16.
- 윤철경·조홍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홍섭 역. 1995. 『환경심리학』. Ittelson, W. H., Proshansky, H. M., Rivlin, L. G. and Winkel, G. H. *Environmental psychology*. 서울: 성원사.
- 이병대·동재욱. 2005. "도시 저소득층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91-103.

- 이봉주 · 임세희. 2008.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 『보건복지포럼』 145: 43-50.
- 이순형 · 신양재 · 김영주. 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2(1): 113-128.
- 이용교 · 천정웅 · 안경순. 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정희 · 김선균 · 최복화. 1990. “대전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28(2): 1-16.
- 장미혜 · 윤덕경 · 염유식 · 이승훈. 2009.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준현. 2000. “유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4): 43-51.
- 홍인욱. 2006. “저소득 아동 · 청소년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및 주거빈곤유형구분”. 『도시와 빈곤』 79: 55-83.
- Anthony, E. K., and Nicotera, N. 2008. “Youth perceptions of neighborhood hassles and resources: A mixed method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11): 1246-1255.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Duncan, G. J., Klebanov, P. K. and Sealander, N. 1993. “Do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2): 353-395.
- Burton, L. M. Price-Spratlen, T., and Spencer, M. B. 1997. “One ways on thinking about measuring neighborhoods: Implications for studying context and developmental outcome for children.” In J Brooks-Gunn, G. Duncan, & J. L. Aber(Eds.), *Neighborhood poverty, volume II: Policy implications in studying neighborhoods*. New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132-144.
- Castonguay, G., and Jutras, S. 2009. “Children’s appreciation of outdoor places in a poor neighborhood.”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9(1): 101-109.
- Davis, A., and Jones, L. J. 1996. “Children in the urban environment: an issue for the new public health agenda.” *Health and Place* 2(2): 107-113.
- Dearing, E., Wimer, C., Simpkins, S. D., Lund, T., Bouffard, S. M., Caronongan, P., Kreider, H., and Weiss, H. 2009. “Do Neighborhood and Home Contexts Help Explain Why Low-Income Children Mis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utside of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545-1562.
-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Social Work* 46(3): 256-266.
- Fagg, J., Curtis, S., Clark, C., Congdon, P., and Stansfeld, S. A. 2008. “Neighbourhood perceptions among inner-cit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ith independently assessed neighbourhood condi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2): 128-142.
- Hart, D., Atkins, M. R., and Matsuba, K. 2008. “The Association of Neighborhood Poverty With Personality Change in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1048-1061.
- Hin, L. L. 2009. “Built environment and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 A Hong Kong perspective.” *Habitat International* 33(1): 45-51.

- Hume, C. Jorna, M., Arundell, L., Saunders, J., Crawford, D., and Salmon, J. 2009. "Are children's perceptions of neighbourhood social environments associated with their walking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12(6): 637-641.
- Min, B., and Lee, J. 2006. "Children's neighborhood place as a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6(1): 51-71.
- Nayak, A. 2003. "'Through children's eyes': childhood, place and the fear of crime." *Geoforum* 34(3): 303-315.
- Pearce, A., Kirk, C., Cummins, S., Collins, M., Elliman, D., Connolly, A. M., and Law, C. 2009. "Gaining children's perspectives: A multiple method approach to explore environmental influences on healthy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Health and Place* 15(2): 614-621.
- Schaefer-McDaniel, N. 2009. "Neighborhood stressors, perceived neighborhood quality, and child mental health in New York City." *Health and Place* 15(1): 148-155.
- Smith, C. 1995. "The Absent Child." Geographical paper no. 116,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Reading.

인터넷 사이트

- 안준호·양승식. 2010. 6. 10. "'제2 조두순' 학교운동장서 女초등2년생 납치, 성폭행." 우리 딸 다니는 학교, 대낮에도 안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0/2010061000077.html?Dep0=chosunnewsandDep1=relatedandDep2=related_all
- 이지현. 2010. 6. 27. "안전지대가 없다-이번엔 주택가 아동성폭행."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6/27/0706000000AKR20100627073900004.HTML>

A Qualitative Study on Lived Experiences of Children Who Live in a Poor Neighborhood -"Hard Life in Our Village"-

Kim, Kyung-Hee
(Kkottongnae University)

Kim, Sun-Min
(Hansung University)

Park, Keon-Hye
(Ewha Womans Universtiy)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impacts of the poor neighborhood on children from their own perspectives. To this end, th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children's lived experiences were explored.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elementary school high grade students living in poor neighborhood. Focused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each of the 24 World Visions social work agenc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qualita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ollowing main themes could be extracted from the children's lived experiences: "Conflict between connection and differentiation", "Resigning to the fate of being neglected in danger" "Learning to live in the dark cave", "Anticipating a bowl of trust from the neighborhood". The children living in poor neighborhood were threatened by the physical and emotional danger highly probable in weak social infrastructure. Also, they have internalized negative self-identity by chaotic environment and, even the negative role models from alcoholic and sometimes violent adults. However, they were experiencing positive caring from and solidarity with surrounding neighborhood, and were participating in volunteered activities for asserting their citizen rights. These may be the keys to empowerment and, ultimately, to change for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for the policy making and the actual practice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children's rights and well-being.

Key words: Children, Poor Neighborhood, Lived Experiences, Relationship, Safety, A Qualitative Study

[논문 접수일 : 11. 04. 01, 심사일 : 11. 04. 19, 게재 확정일 : 11. 06. 07]